

“백신 접종 차질없이 실행해야”

문 대통령, 靑 수보회의 모두발언

“백신, 국제정치 현실 직시… 우리 형편 맞게 접종 백신 정치화로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세제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난에 따른 각국의 ‘백신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적하며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세제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난에 따른 각국의 ‘백신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지적하며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응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해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북도의회는 2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렴 문화 확산 ‘앞장’

도의회,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대표는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미얀마 국민 민주주의 회복 응원”… 세 손가락 경례

도의회, 미얀마 국민 지지
군부 폭력 등 중단 촉구



전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폐회 이후, 미리 구매한 미얀마사랑 티셔츠를 입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며 응원했다.

“축종 따른 축분관리 방식 달리 해야”

최영일 도의원,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 따라 축분 처리
효율성 향상 위한 대안 제시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도내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도내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철하
도교올림픽 불참 촉구해야”

전북도의회는 26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확정에 따라 방류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철하에 따른 도교올림픽 불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하천구역 지정 도민 소유 땅 보상 대책 마련을”

강용구 도의원



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또 그는 “하천 정비사업을 확대해 토지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하천구역 지정 시 소유자에게 적극 알리고 동시에 권리 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하천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지방하천 정비율은 50프로가 채 되지 않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 주인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의결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태 마스터스,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이병철 도의원, 전북도에 관광자원 발굴 등 주문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5)은 26일 2023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전북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와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해야”

김명지 도의원, “제도 악용 페이퍼컴퍼니 만연”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 8, 더불어민주당)이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내 주주지만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지역제한입찰에 참가, 낙찰만 받고 실제 용역은 계약금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취부당이익을 챙기는 자격미달회사를 말한다.